

# 전남 TP, 지역경제 활성화·중기 수출 경쟁력 강화

## 연간 7000만원 규모…단계별·글로벌 사업화 중점 뿌리 기업 사업 다각화·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도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남지역 뿌리기업 육성과 고부가 첨단 산업 전환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식재산센터는 전남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간 최대 7000만원 규모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기반 기

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단순 지식재산 관리와 지원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별 수요맞춤형 IP전략 수립과 글로벌 사업화 연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는 오는 2월 19일까지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단계별 종합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기업 맞춤형 IP포트폴리오 설계, 해외 진출을 고려한 권리화·브랜딩 전략 강화, 기술·브랜드·디자인을 연계한 IP활용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특허기술 홍보 영상 제작, 특허맵 수립, 신규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해외 출원·OA·등록 비용 지원 등 지식재산 전 과정에 걸친 전략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남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남테크노파크는 연중 수시 신청 접수 사업으로 IP진급지원, IP나래프

로그램, IP디딤돌프로그램, 소상공인 IP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테크노파크가 뿌리 기업의 사업 다각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의 지원을 통해 금속소재융복합에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3단계)을 추진해 560건을 지원했다.

그 결과 사업화 매출 1620억원, 신규 고용 745명, 특허 201건, 인증 101건, 논문

33건 등 성과를 내며 전남 뿌리기업 육성 및 고부가 첨단 뿌리산업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친환경 규제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과 미래 고부가 가치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7월부터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4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전남 뿌리산업의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신산업·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 전문인력 양성, 벤처·스타트업 육성 및 산업 위기 대응 등 4개 추진전략을 진행 중이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기업에

서 지식재산을 보호수단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 "전남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IP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남 뿌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공정 디지털 전환 지원, 미래 첨단 산업 전환 제품개발 R&D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의 많은 뿌리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 지방시대위 “지방은행 지역경제 기여도 반영돼야”

### 세종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 개최…제도 개선 논의 공공기관 금고 선정 ‘지역 실적 미반영’ 애로사항 건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은행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방은행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9일 세종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지방은행 지주회사 회장, 지방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설계도'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투자와 금융의 핵심 주체인 지방은행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경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 지역금융의 기여가 정당하게 반영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은행장들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금고·거래은행 선정 과정에서 지역금융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부담 완화, 정책자금의 지역은

행 배정 확대, 보증서 대출 배율 조정, 예금보험료 산정 시보증기관 대위변제 상품의 연체 반영 방식 개선,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지역 실수요 반영 등 현장 애로를 폭넓게 건의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 등에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금융기관이 공공기관 금고를 맡을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등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

#### 중기중앙회, 30일까지 접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이다. 선정된 조합은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에 대해 월 인건비의 70%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재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2년 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9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앙회가 제공하는 협동조합 운영과 공동사업 전략 수립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공동사업 기획과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SK텔레콤은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 SKT, 나주 중·고교생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 등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19일 SK텔레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특화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진행됐으며 나주 지역 중·고교 학생과 교사, 대학생 멘토, 관계자 등 45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 텔레콤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유형과 사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기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대응 원칙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을 이해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실천 방법을 익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KISA, 118상담 서비스 개편…디지털 안전망 구축

### 챗봇 도입·통합 플랫폼 신설…사이버 고충 ‘원스톱’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18상담센터 개소 16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며 디지털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톱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이버 고충을 지원하는 118상담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118상담센터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사이버 안전 창구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맞춤형 대응 안내를 통해 피해 예방에 기여해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 서비스 도입과 '118네비게이션(118.kr)' 웹페이지 신설이다. 기존 전화

상담 상단에서 벗어나 상담 방식을 다각화하고 상담·신고·서비스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실시간 채팅·챗봇 상담은 PC와 모바일을 통해 118네비게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다.

통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상담이 가능해지면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전화 이용이 쉽지 않았던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〇〇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식사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분야주요 분야)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트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

